



제07-51호

세계경제 동향 및 2008년 전망 총괄

이 인 구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iklee@kiep.go.kr, Tel: 3460-1153)

주요 내용

- ▣ 서브프라임 사태로 유발된 신용경색이 미국의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미국경제는 주택시장 위축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2% 내외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EU 및 일본의 경제성장률도 2007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세계경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의 고성장에 힘입어 4% 후반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 한편 2008년 국제금융시장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 및 전개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망과 관련하여 최근 비관적 견해가 다소 우세한 상황이나, 미국의 민간 소비 및 기업부문의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할 때,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 경기의 급격한 하락 및 세계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 금융시장의 매력 감소로 동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금융시장으로 자본이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 통상환경을 살펴보면 DDA 협상은 6년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 및 NAMA 분야 핵심 쟁점에 대해 주요국 간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경제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제발전 도모의 수단으로 FTA 체결 등 지역주의에 비중을 두고 있어 당분간 각국의 활발한 FTA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 2006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는 금융시장에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07년 중에는 신용경색 우려와 겹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각되었음.
- 미 연준은 지난 2007년 9월 18일, 15개월에 걸친 금리동결을 중단하고 정책금리 목표치를 5.25%에서 4.75%로 인하한 후, 12월 11일 다시 4.5%로 인하함.
- 2007년 3/4분기 실질 GDP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세 등의 확대에 따라 전기대비 연율 4.9%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06년 1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미 상무부는 무역수지, 개인소비지출, 민간재고투자, 정부지출 등의 개선에 힘입어 지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잠정치 3.9%에서 수정치 4.9%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함.
- 2007년 물가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압력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수십 년간 미국경제의 신뢰성 저하요인으로 지목되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06년에 이어 2007년 연속 개선되었고, 이는 향후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둔화 효과를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미국경제는 주택부문 침체 지속, 서브프라임 사태, 소비지출 감소, 고유가 등의 부정적 요인과 기업실적 양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감소, 모기지 부실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라는 긍정적 요인의 혼조 속에 2.0% 전후의 낮은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단 서브프라임 사태와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및 수출 증대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중국

- 2007년 1~9월 중 중국경제는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투자 억제, 부동산시장 규제 등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11.5%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
- 2007년 중국경제는 국내 투자, 소비, 수출 등 3대 수요요인이 모두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음.
- 물가 상승 압력,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보유 증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가하는 통상 압력과 위안화 절상 압력 등이 중국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안정세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에는 1997년 2월 이후 최고치인 6.5%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1~10월 중 무역수지도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하였음.
- 국내 유동성 증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투자 증가, 급상승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08년에도 긴축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08년 금융정책에서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12월 25일부터는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인상할 계획임.
- 2008년 중국경제는 투자와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소비가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10%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긴축조치로 투자 증가율이 소폭 둔화되고, 수출에 대한 규제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할 것임.
- 과도한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절상 압력으로 위안화 환율은 내년에도 점진적인 절상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절상 속도는 2007년에 비해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일본

- 2007년 일본경제의 기조는 가계부문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과 유럽에 대한 수출 확대,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배경으로 기업부문이 주도하는 완만한 속도의 회복세가 이어짐.
- 그러나 2007년 중반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가격 급등, 건축기 준법 개정에 따른 건축착공의 대폭 감소 등 마이너스 요인이 대두되면서 경기하강 압력이 커 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의 27개 민간연구소는 2007년도 경제성장률을 평균 1.5%로 전망하였는 데, 이는 연초 정부가 전망한 2.0% 성장률을 밑도는 것임.
- 2008년도 일본경제는 건축착공이 잠재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2008년 중반부터 주택투 자, 기업의 건축투자 증가세가 강해져 성장률이 2.0%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일본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서는 건축착공의 대폭 감소 장기화, 원자재 가격의 급등 지속,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의 심각화, 신흥시장의 버블 붕괴 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일본정부는 경기하강을 의식한 정책운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건축 확인 심사의 장애를 제거하여 건축착공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 제임. 또한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의 목표를 그동안 '금리정상화'에 두었으나 향후에는 '경기 하강 리스크'를 보다 중시할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내수의 경기견인력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임. 해외경기의 감속, 해외 주가의 하락, 신용불안의 파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일본경제가 전체적으로 외부충격에 대 한 저항력이 취약해지고 있으므로 강력한 성장전략을 단행함으로써 소득향상 저조, 격차 문 제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EU

-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2007년 EU 경제는 2006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EU 경제는 경기호조세를 이어가면서 2006년(3.0% 성장)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 2.9%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006년에는 투자와 수출 확대가 EU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반면, 2007년에는 경기호황의 파급효과로 인한 고용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그리고 낙관적 전망에 따른 투자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 말부터 EU의 경기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증가, 기준금리 인상과 신용경색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경기 부진, 주요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문제와 복지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정책 추진 등이 서서히 EU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EU의 2008년 경제성장률은 신용경색, 유로화 강세, 고유가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2007년보다 다소 낮은 2.4%로 전망됨.
- 2008년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민간소비 및 총투자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경기 둔화와 유로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은 2007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시장 불안 및 주택경기 둔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국과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이 2007년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 및 투자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는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금융시장

-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의 영향으로 2007년 8월 중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인 절하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전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절상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임.
- 원/달러 환율의 강세 원인으로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한국의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 지속 등의 요인 외에도 수출기업들의 달러 선물환 매도, 해외 증권투자 시 환헤지를 위한 달러 선물환 매도, 금리 재정거래를 노린 달러 유입 등을 들 수 있음.
- 향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전망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음.
- 달러 약세론: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2008년도 미국경제는 건축경기 부진과 소비 둔화에 따른 성장 위축 등을 경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본순유입 감소에 따른 달러화의 추가적 약세 현상이 나타날 것임.
- 달러 가치 유지론: 서브프라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단행한 미국 연방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의 효과를 발휘하여, 2008년에도 달러화는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 한편 서브프라임 사태 전망과 관련하여 최근 비관적 견해가 다소 우세한 상황이나,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경기의 급격한 하락 및 세계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이는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간소비 및 기업부문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에 기인함.
- 또한 엔캐리 거래의 청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나, 신흥국 경기 호조, 일본의 금리인상 속도 및 대외금리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엔캐리 거래가 단기간에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낮음.

통상환경

-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DDA 협상은 6년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 및 NAMA 분야 핵심 쟁점에 대해 주요국 간 입장 변화가 없었음.
- 2008년 초반 DDA 협상은 농업 및 NAMA 분야 세부원칙 합의·도출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며, 2008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2008년 이후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2007년 10월 말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의 건수는 194건이며, 칠레·일본 FTA 등 8건의 신규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발효됨.
-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한·미 FTA가 타결되었고, 6월에 ASEAN과의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11월 말에는 ASEAN과의 서비스무역협정이 타결되었음.
- DDA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RTA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향후 EU, 캐나다, ASEAN(투자협정) 등과 협상을 타결할 전망이고,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 협상 개시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임.
- 한·미 FTA 비준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한·미 양국 모두 대선 일정이 연속됨에 따라 비준 자체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적음. 특히 미국의 민주당은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비준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본고는 [2007년 세계경제 동향 및 2008년 전망 총괄편]이며, 각 국가별 상세한 경제전망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경제
중국경제
미국경제
EU 경제
통상환경
국제금융시장